

6·25때 읽을 뻔했던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 고려 목판인쇄술의 전통 이어

8세기 중엽에 처음 등장, 13세기 중엽 <고려대장경판>에 이르러 절정을 보인 목판인쇄술은, 각종 동화나 남활자가 쏟아져 나온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활자인쇄와 더불어 중요한 출판수단으로 책문화에 기여했다. 이 시기(고려말~조선초)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두드러진 것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帝王韻紀)》가 있다.

유명한 일연(一然, 1206~1289)스님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것은 그의 나이 70대 후반인 1281년(충렬왕 7)경이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삼국유사》의 인본(印本:인쇄된 책)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목판본(보물 제419호·개인소장)이다. 유감스럽게도 5권 1책 가운데 3·4·5권만이 남아 있다.

이 책은 원래 사학자 권덕규(權德奎, 1890~1950)가 소장했다가 서지학자 이인영(李仁榮:서울대 교수로 재직중 6·25때 납북)의 손을 거쳐 서화가이며 고서수장가인 이병직(李秉直, 1896~1973)에게 양도된 것으로, 6·25발발 2주일 전에 있었던 고서경매에서 물경 135만원(당시 《제왕운기》는 11만원)을 호가했던 책이다. 그러나 곧 전쟁이 터지면서 이 책은 어찌어찌 경북공의 국립박물관 금고 속에 갇혀 있게 되었는데, 9·28 서울수복 때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이 금고를 박물관 뜰에다 끌어내놓고 깨뜨렸으나 금덩이 대신 공팡내 나는 고서 한권이 나오자 그냥 팽개치고 가버렸다. 그것이 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왼쪽부터).

**6·25발발 직전
고서경매에서 물경 135만원을
호가했던 《삼국유사》는
전쟁이 터지면서 행방이
모연해졌는데, 9·28수복 때
후퇴하는 인민군의 무지 덕분에
용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행히도 당시 국립박물관에 근무하던 역사학자 이홍직(李弘植, 1909~1970)의 눈에 띄어 원주인인 이병직에게 되돌려졌다는 얘기가 있다. 한편의 책이 후세에 유전하기까지의 우여곡절을 전해주는 일화이다. (이점로, 《동문관 책방비화》, 1987)

김부식(1075~1151)의 《삼국사기》는 그가 71세 때인 1145년(인종 23)경에 편찬, 1174년 이전에 초간본이 나왔지만 지금 전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는 여러 판본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성암고서박물관

에 있는 '성암본'(보물 제722호)이다. 13세기 후기에 간행된 '성암본'은 권44~권50뿐이지만, 이 책이 발견되면서 다른 판본들의 잘못된 곳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권1~권50까지 9책이 모두 갖춰진 완질본으로는 경주 옥산서원 것(보물 제723호)이 유일한데, 이것은 1512년(중종 7)에 간행된 것이다.

《제왕운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운문(한시)으로 읊은 것으로,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더불어 고려중기의 대민족서사시로 일컬어진다. 작자 이승휴(李承休, 1224~1300)가 강원도 삼척의 두타산에 은둔할 때 지은 것으로 1287년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 번 중간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보물 제418호(개인소장)로 지정돼 있는 상·하 2권1책으로 고려말~조선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동국대도서관 소장본(보물 제895호)은 내용 일부가 떨어져 나갔지만 발문과 간기 등이 뚜렷해서 인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W)

출판저널

통권 제210호 / 1997년 3월 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액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컴퓨터조판 & 바코드

- 서체견본을 보내드립니다.
- 흥익에서 개발한 S/W 및 보강된 내용
 - 사전 및 색인 자동분류프로그램(한글·한문·영문혼용)
 - 바코드출력 S/W (ISBN·ISSN·등재부) 및 WP 변환 S/W
 - 조합될 수 있는 모든 한글·고어·한문 처리, 약물 15000자 추가
 - 한글 115종, 한문 50종(교과서체 4종), 영문 523종 러시아어 8종, 일본어 8종 추가
- 흥익의 시설
 - 편집입력기 30대·출력기 3대

바코드인쇄원판제작이용안내 : 전화/FAX를이용하시어발행자번호,서명식별번호,부가기호만알려주십시오.

弘益컴퓨터印刷(株) 마포구 서교동 337-25 장수빌딩 2층
弘益電子出版研究所 ☎ : 323-6333~5 FAX : 337-0460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합철본을 제작, 한층 자료가치가
높아진 합본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합본호 판매안내

- 합본1호 (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 (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 (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 (날권31~40호) 5,000원(판매)
- 합본5호 (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 (날권51~60호) 5,000원(판매)
- 합본7호 (날권61~70호) 5,000원(판매)
- 합본8호 (날권71~80호) 5,000원(판매)
- 합본9호 (날권81~90호) 5,000원(판매)
- 합본10호 (날권91~100호) 5,000원(판매)

- * 구독에 불편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전화·서신 등을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합본호 구입시 우송료는 수취인 부담이므로 본사를 직접 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

*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

출판저널